



#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

제 2021 - 30호

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목 : 2021년 제61주년 「4.19 혁명 기념일」 계기 교육 자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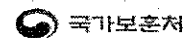
- 요약 :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1) 발단 :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는데, 자유당은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2) 전개 : 이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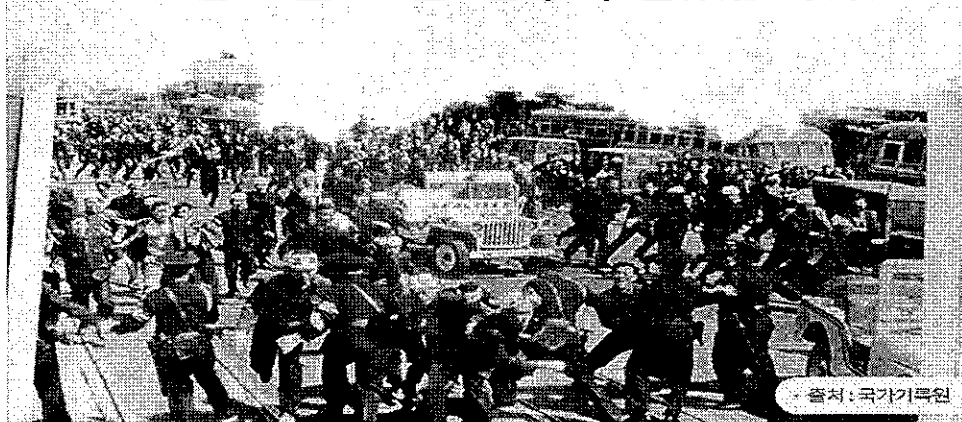
그러던 중 4월 11일 1차 마산시위(3월 15일)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제2차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이후 4월 18일 고려대학교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던 중 과청년들의 습격을 받았고, 일부 학생들은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다음 날인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하였다.

3) 결말 : 여기에 4월 26일 전날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였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정과 억압에  
맞섰던 학생과 시민들!

날이 갈수록 커져간 '민주'를 향한  
외침은 4월 19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출처 : 국가기록원

2021. 04. 16.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h1>가 정 통 신 문</h1>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1 - 31호</p> <p>동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목 :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 날」 계기 교육 자료 안내</p>		

## 1. 「장애인의 날」 유래

유엔은 '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 뒤 '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 43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 정기기념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91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14개 민간 장애인 단체의 모임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이 '재활의 날' 전통을 잇기로 결의하여 '91년 4월 20일을 '제 1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명기된 유일한 법정단체였던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사의 주관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 2. 「장애인의 날」 의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기념식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되며, 야외행사에서는 특집방송, 풍선을 이용한 모형 만들기, 얼굴 페인팅 등 놀이마당이 열리고, 종교단체·기업·사회단체 등이 마련한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인복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 3.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

현재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이다. '91년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 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르자는 취지로 '장애인복지 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다. '91년 당시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뇌성마비 복지회' 김학묵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2004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재는 27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4. 「장애인의 날」 법적근거 ※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 제공 -

2021. 04. 16.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